

### 한형조 무문관 발행

66

#### 운문의 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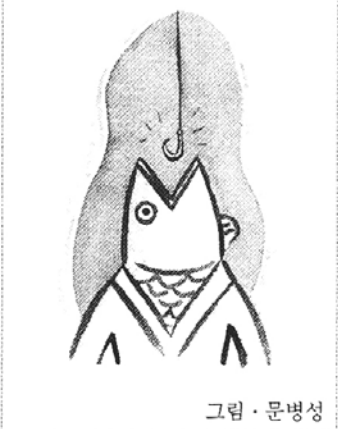
\* 어느 승려가 운문(雲門)에게 물었다. "광명이 온갖 세계를 고요히 두루 비추고..." 한 구절이 체득되기 전에 운문이 가 토막이었다. "그건 장축(張拙) 수재(秀才)의 시가 아닌가." 승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운문이 말했다. "말이 바닥에 떨어졌네." 나중에 사심(死心)이 이 일화를 듣고 대중에게 말했다. "자, 말해보라. 어디가 승려가 말을 떨어뜨린 곳인가."

\* 나 해가 말한다. "여기서 보는 바가 있다면, 즉 운문의 위태로운 움직임과 승려의 떨어뜨린 곳을 꿰뚫고 있다면, 인천(人天)의 스승이 될 만하다. 그렇지 않고 아직 어둡다면 제 한 문도 구하지 못한다."

\* 송하여 가로되, "금류에 뉘시를 드리우면, 먹이를 탐하는 자들이 울 커든다. 입을 벌리는 순간, 독숨을 앗고 말 것이다."

雲門語錄:  
雲門因僧問, 光明寂照遍河沙, 一向未絕, 門達曰, 豈不是張拙秀才語. 僧云, 是. 門云, 話墮也. 後來死心, 拈云, 且道, 那裏是者裏見得, 雲門用處孤危. 者僧因話墮, 堪與人天爲師. 若也未明, 自救不了. 頌曰, 急流垂釣, 貪餌者蒼. 口饒袈裟, 性命喪却.

운문은 네 번째 등장한다. 동산을 '밥통'이라고 번역하여 하룻밤을 번민



다. "세계를 비추는 광명이란 대체 무엇이며, 부처와 증생과 나는 어떻게 한 식구인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영원의 실상이 구현된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더구나 인간이 모든 감각기관을 차단하고 한시라도 살 수 있던 말인가. 번뇌를 끊고 진여를 구현하려는 것 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니 도무지 어는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일반과 생사의 구별이 없고, 그저 세속을 따라가는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면 불교는 무엇이며 수행은 또 무엇인가. 이런 레세케르의 권고를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운문, 당신은 그 비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 하니 어디 그 속내 좀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광명에 승려는 우선 시를 읊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구절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운문이 말하기를 자르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그저 장축이 읊은 시가 아니라." 승려는 운문이 진작 이 시를 알고 있는 모양이 너무 이상 외는 수고라 필요없겠다고 생각했다. 자상한 해설을 기대하며 운문의 입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운문의 대우가 기대대로 맹맹했다. "말이 바닥에 떨어졌네." 화타(話墮)란 말 그대로

## '지금' '여기'의 자기를 보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과(因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팔정도에서는 '마음챙김(mindfulness)'을 불교 수행의 근본적인 자세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이 자세를 지속해 나아가면 몸과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챙김'을 '염두하라(Be mindful)'와 같이 무미건조한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

책 콘필드가 쓰는

###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6

정정 ①

우리가 '마음챙김'의 본질적인 뜻을 제대로 사유한다면 그 말에 담겨 있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각각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마음(mind)과 심장(heart)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찾으면 '진심에서 우러난 것(heartfulness)'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마음챙김은 마음 그 자체며 수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고 가르쳤다. 또 "자유와 불멸의 길이며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로 향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명상 수행을 시작해서 끝내기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을 놓지 않았는가? 명상을 시작하지 수 년이 지나서도 초발심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마음챙김'은 무엇이며, 그것이 담

다. 마음과 몸, 귀, 눈 등으로 바로 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카지노에는 "당신이 이겨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마음챙김도 바로 이같은 경구를 가지고 있다. '마음챙김'에서 미래의 환상과 과거의 추억은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에 마음을 집중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여기' '지금' '현재' 등에서 유·무정물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자비를 실천하는 계기도 맞게 될 것이다. 경이로움의 세계이며 깨달음의 세계이다.

마음챙김은 또 진심에서 우러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집착·탐욕·해악 등을 떨(滅)해주고, 매 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현재'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정서적인 성장을 얻으려는 사된 생각을 품는다. 명상으로는 신비하고 기괴한 체험을 결코 할 수 없으며,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환각제를 삼습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영국의 귀족이 있었다. 그가 환각제를 먹는 것은 낯다른 체험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로는 환각제에 손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이유를 묻자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여행하며 동·식물들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내가 경험하고자 했던 경이감 혹은 신비감은 삶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의 본체에 담겨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귀족은 주변의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챙김'을 하는 명상도 마찬가지이다. 명상은 한 토막의 통나무에 비할 수 있다. 통나무의 한쪽 끝을 통찰과 관찰(慧)이라 한다면 다른 한쪽은 고요와 집중(定)이다. 통나무를 들어 올리면 양쪽 끝은 동시에 올라온다. 오로지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coo@buddhania.com)

## 남의 뉘싯밥을 물지말라

"진리 영원 샅된것...인연 따르면 걸릴것 없네"

하게 됐고(제15칙),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식당을 찾던 대중을 질타했으며(제16칙), 우상 파괴를 통해 진리와 자유의 실재와 만나라고 권고하던(제21칙) 그의 정경한 목소리를 기억한다. "부처란 통대개기일 뿐이야!" 그 운문에게 어느 승려가 찾아왔다. 그는 대뜸 당시 유행하던 시 한 수를 읊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시는 일찍이 장축이라는 유학자가 선사인 석상경저(石霜慶諸)를 만나 지은 것이었다.

"광명이 온갖 세계를 고요히 두루 비추니 부처와 증생이 모두 내 식구로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이 드러나고 여섯 감각이 움직이면 구름에 차단된다. 번뇌를 끊겠다는 것이 병을 더 깊게 하고 진리를 향한 영원 또한 샅된 것이라 세상의 인연을 따라 가면 걸릴 것이 없는데 열반이니 생사니 하는 것, 다 부질없는 소리" 光明寂照遍河沙 凡聖含靈共我家 一念不生全體現 六根發動被雲遮 斷除煩惱重增病 趣向眞如亦是邪 隨順世緣無碍 涅槃生死壽空花

시의 어조는 육조 혜능을 찾아와 하루를 묵으며 인가를 받았던 일숙각(一宿覺)의 <중도가(靈道歌)>를 연상시킨다. 그 승려는 이 시에 담긴 선의 역설이 못내 공명했던 모양이

'실패한 말'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화과(話破), 즉 "말이 부서졌다"라고 하기도 한다. 요컨대 "너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어"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질책이었다.

운문은 승려의 공금증을 풀어줄 생각을 않고, 승려의 입을 아예 봉해버린 것이다. 기습이었다. 가치없고 무자비한 운문의 세치 칼에 승려는 아마 혼이 뜨고 일이 흘러졌을 것이다. 해개가 운문의 대처를 '위태롭고 험준하다(雲門用處孤危)'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 운문이 누구인가. 창시자를 두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아닌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니, 만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뭉뚱이로 때려 죽여 천하의 평안을 도모했을 것이다."

과연 어디가 승려가 잘못된 곳인가. 그것을 알면 육도(六途)의 최상층인 인간(人間)과 천상(天上)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몸통이 하나도 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 것이다. 관건은 합부로 '남의' 뉘싯밥을 물지 않는데 있다. 미끼를 향해 입을 벌리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방정식은 등호(=)로서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같음을 간추려 나타낸다. 가령 'x<sup>2</sup>=2' 라면 'x'를 제곱한 것이 2가 된다'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때는 x<sup>2</sup>=2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복수한 수(x=±√2)를 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이 자연수에 관한 식은 자연수 전체를 관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명이어야 한다. 간단한 보기로 '3, 4, ..., (n+2), ...' 라는 수열을 생각하자. 첫째항 (n=1)은 3, 둘째항 (n=2)은 4, ... 이때 'k번째항(n=k)은 k+2라는 등차가 성립한다. 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10000번 제창이 10002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1부터 10000까지의 수를 일일이 나열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 수가 10002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열 사이에 관통하는 연기의 이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수법장(賢首法藏·643~712)스

### 불교학 수학

70

#### 귀납법의 연기관

김용운

님의 <오교장(五教章)> 마지막 대목에 '의이분제(義理分齊)'가 있다. 여기서 '십현연기무애법문의(十玄緣起無窮法門義)'라 해서 자연수의 연거적인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화엄철학에서는 모든 것(一切法)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相即相入). 하나가 전부이자 전부가 하나(一即一切, 一切即一)이며 서로 상충하는 일없이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事事無礙)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1부터 10의 수 (1, 2, 3, ..., 10)를 생각한다. 10으로써 상징적으로 자연수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연수의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하나씩 더해 얻어지는 수 전체이며 무한으로 뻗어 가고 있다. 수직 선상에는 1의 점에서 시작해서 같은 간격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무한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수학의 역사상 자연수에 관한 귀납법의 원리가 등장한 것은 불과 1백년 전의 일이며 수학의 기초론이 마련된 후의 일이다. 페아노(Peano)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원리를 주장했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n에 관한 명제 P(n)가 있고 (1) n=1 일 때 즉 P(1)일 때 성립되고 (2) n=k 일 때 즉 P(k)일 때 성립한다면 항상 n=(k+1)일 때, 즉 P(k+1)이 성립한다. (1)과 (2)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어떤 자연수의 n의 경우에도 이 n에 관한 명제 P(n)이 성립된다. 가

### 날날의 數는 자성없어 '1을 더하고 빼기' 연기의 리 자연수 전체 질서 만들어

령 이 귀납법의 원리로 1+2+3+...+n=½n(n+1) 이 성립함을 증명하자 n=1일 때 : 좌변은 1, 우변은 ½×1×2=1임으로 성립된다. n=k일 때 : 1+2+3+...+k=½k(k+1)이라 가정하면 n=k+1일 때는 좌변이 1+2+3+...+k+(k+1) 가정에 의하여 1+2+3+...+k=½k(k+1)이므로 ½k(k+1)+(k+1)=(k+1)(½k+1)=½(k+1)(k+2) 따라서 ½n(n+1)의 n에 (k+1)을 대입했을 때의 모양이 되었으

므로 n=(k+1)이 성립되었음을 알았다. 결국 1+2+3+...+n=½n(n+1)이 모든 n에 관해서 성립되었음이 증명된다.

이 귀납법의 원리는 1에서 시작해서 2, 3, 4, ... 라는 식으로 자연수 전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장대사는 이 사실을 '에서 十까지의 수를 가지고 설명한다. '어 차려로 더함으로써 二, 三, ..., 十이 된다. 더한 이것을 반대향으로 잡고 十에서 一을 차례로 빼 가면 九, 八, 七, ..., 一을 얻을 수 있다. 이들 날날의 수는 자성(自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수 전체를 지배하는 연에 의해서 생기는 수(緣成의 수, 또는 緣起의 수)이므로 상즉상입하여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事事無礙). 결국 一이면서 二이고, 三이고, ... 十이다.'

이와 같이 연기의 이에 뿌리를 두고 자연수 전체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날날의 수 자체는 본성이 없다(空). 자연수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1을 더한다'는 행위적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장은 十을 상징적으로 택하여 자연수 전체를 보고 이것이 지니는 무한성을 연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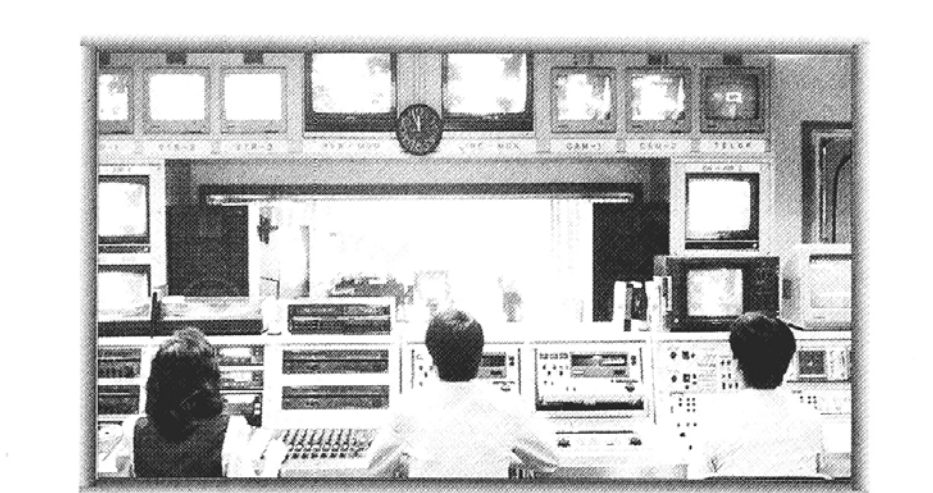
H·Y·U·N·D·A·I P·R·O·D·U·C·T·I·O·N

## 확장 이전 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현대프로덕션은...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날카로운 정보, 최고급 정보로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 현대프로덕션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정보사회 포교수행의 동반자 「현대프로덕션」이 본격적인 영상 포교의 시대에 참여하고자 100평 규모의 첨단 설비를 구성하여 확장 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한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7-4 안택스 B/D 지하 대표전화 (02)553-8881 · FAX 554-8881

###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시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시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시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